

## 성인에서 발견된 위의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 1예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내과학교실<sup>1</sup>,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병리학교실<sup>2</sup>,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영상의학교실<sup>3</sup>김새롬<sup>1</sup>, 홍수진<sup>1</sup>, 김신희<sup>1</sup>, 유혜원<sup>1</sup>, 김희경<sup>2</sup>, 임상혁<sup>3</sup>, 이지은<sup>3</sup>

**서론:**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은 림프구와 형질세포, 근섬유모세포,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드문 종양으로 정확한 병태생리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주로 2세에서 16세의 소아에서 발생하며 성인에서 발생은 더욱 드물다. 대개 폐, 안와, 후복강에서 발견되며 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성인에서 우연히 발견된 위의 상피하 종양이 췌기 절제술을 통해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으로 진단된 1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평소 특이 병력이 없던 43세 남성이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된 상피하 종물로 내원하였다.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었으며, 상부위장관내시경에서 약 2cm 크기의 중심부 함몰을 동반한 정상점막으로 덮힌 용기성 병변이 위기저부의 전벽에서 관찰되었다. 초음파내시경에서 해당 병변은 고유근층에서 기원한 저에코 종물로 점막하층의 소실과 점막근층의 비후를 동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유암종과 림프종을 감별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만성 염증으로 확인되었다. 복부 CT에서 위 기저부의 비균질하게 조영되는 약 2.5cm 크기의 상피하 종양을 관찰하였다. 조직학적 확진과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 하 췌기절제술 시행하였다. 절제된 조직은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방추형 세포가 다발을 형성하며 증식하고 있고 다수의 형질세포, 림프구 및 조직구의 침윤을 동반하며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종양세포가 ALK 에 양성으로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재발 소견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내시경 검사와 영상검사에서 점막하 병변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다면 진단 및 치료 목적을 위하여 수술을 통한 조직학적 확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